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 담은 '고백록'

지식인들의 편지

지식인들의 서간집은 어느 편지모음과 사뭇 다르다. 지식인들의 편지에는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오랫동안 버려왔던 이론에 대한 소개와, 다른 학자의 견해를 비판하는 논쟁적인 글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탁한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은 편지를 통해 자유를 질식시키는 권위와 억압을 통렬한 문체로 풍자하기도 했다.

1844년 여름, 엥겔스는 파리에 있던 마르크스를 방문했다. 그때 그들은 모든 이론분야에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그들의 공동작업이 시작됐다. 얼마 후부터 그들은 서신을 교환했다. 런던과 맨체스터 사이에 1천통 이상의 편지가 오갔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구상되고 《자본론》을 비롯한 많은 저작들이 쓰여졌다.

《자본론에 관한 서한집》(한네스 스킴브라스, 김호균, 중원문화)에 담긴 기록처럼 지식인들은 편지로 이론을 연마하고 사유를 가다듬었다. 자유를 질식시키는 권위와 억압을 비웃는가 하면, 고백성사하듯 내면의 고뇌를 토로하기도 한다.

풍자와 조롱으로 가득찬 철학적 서한

계몽사상이 볼테르의 《철학서한》(박영혜, 삼성미술문화재단)은 간행 당시 프랑스 사회를 발자 뒤집어놓았다. 1734년 루앙에서 출판되자 책은 불태워지고 볼테르는 피신해야 했다. 볼테르는 이 서한집에서 영국을 예찬하고 프랑스 사회를 비판했던 것이다.

이보다 조금 앞선 1721년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소두영, 삼성출판사)를 발표했다. 프랑스에 망명한 페르시아 고관 유스베크와 그의 친구 리카가 친구·하인과 편지를 교환하는 내간체 소설 형식을 빌어 프랑스의 전체정치를 신랄한 필치로 풍자하고 자유사상을 전파했다.

한편,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아버지인 플레하노프는 《주소 없는 편지》(유영하·이승민, 세계절)에서 유물론적 예술론을 피력했다. “경애하는 선생! 이 편지에서는 예술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로 시작되는 이 서간문은 예술의 기원을 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해명한다.

지식인들 사이에 오간 편지는 때로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발자크와 스탕달 사이에 오간 예술논쟁을 엮은 《발자크와 스탕달의 예술 논쟁》(김진욱, 범우사)이 대표적이다. 스탕달의 〈파프르의 승원〉을 둘러싸고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체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작가의 정

신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편지들이 주장과 계몽에 가까운 ‘차가운’ 글들이라면 노신, 다산, 달라이 라마 등의 서간은 다음 세대에 삶과 방향을 깨우쳐주는 ‘따뜻한’ 글들이다. 노신이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들 묶음은 《청년들아, 나를 딛고 오라》(유세중 편역, 창)에는, 청년들이 암흑에 맞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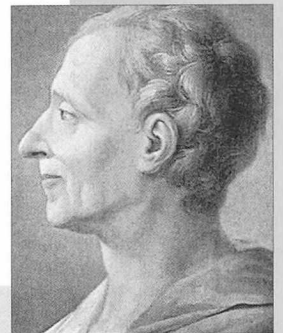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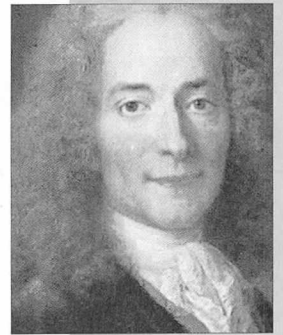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박석무 편역, 창작과비평사)는 아들에게 주는 추상같은 가르침, 둘째형에게 보내는 극진한 사랑 등을 담았다. 《세계의 지성 28인의 편지》(리브 올만 엮음, 김승욱·이동준, 작가정신)는 달라이 라마, 넬슨 만델라, 움베르토 에코 등이 다음 세대에 보내는 감동의 글을 모았다.

이국 땅에서 보낸 자아성찰의 기록

이국 땅에 발을 디딘 지식인들은 자아성찰의 기록을 편지로 띄워보낸다. 정문길 교수(고려대 행정학과)는 1997년 3월부터 8월까지 독일에 머물렀다. 북유럽의 자연풍광, 《마르크스-엥겔스 전집》 편찬과 관련한 연구현황 등을 담아 지인들에게 보낸 10편의 서신을 《보름통신》(문학과지성사)으로 펴냈다.

앞의 책이 한 사회과학자의 시각을 담았다면, 전영애 교수(서울대 독문과)의 《괴테의 도시, 바이마르에서 온 편지》(문학과지성사)에는 문학적인 감수성이 스며 있다. 1996년 겨울 바이마르에 체류하면서 보낸 편지에서 지은이는 바이마르를 스쳐간 사람들과 그 도시의 역사를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시공을 초월해 우리에게 배달된 지식인들의 편지는 한결같이 열정으로 충만해 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린 의지다. 우리가 그들의 편지를 열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박천홍 기자



맨위부터 볼테르, 몽테스키외, 엥겔스.